

종영 앞둔 tvN '미스터 션샤인' 관전 포인트

일제 악행·의병 활동 등 시대아픔 생생

후반부 격정적 전개로 눈길
예측불허 결말에 기대감
내년 '임정 100주년' 맞아
일제강점기 시대극 몰고



그들이 그제야 무개개다. 의병(義兵)이다. 이 이름이...

주한일본공사 하야시가 외부대신 서리 이지용을 칼로 위협해 한일의정서에 사인을 받아냈다. 러일전쟁 중 대한제국의 중립에 대한 의지를 송두리째 무시한 이 한일의정서는 실제 역사에서 1904년 2월 체결됐다. 경술국치까지 약 6년이 남은 시점이다.

일제강점기 직전을 배경으로 한 tvN 주말극 '미스터 션샤인'이 총 24회 중 4회를 남겨두고 시대 아픔의 한가운데로 들어서면서 시청자의 눈도 고정되고 있다.

◇ 임정 100주년 앞두고 재조명된 의병들, 일제의 악행
중반부 적지 않은 분량을 유진 초이(이병헌 분)와 고애신(김태리), 그리고 구동매(유연석), 김희성(변요한) 간 사각 로맨스에 치중했던 드라마가 4회를 남기고 본격적으로 일제의 악행과 의병의 활약, 민초의 고통을 생생하게 담기 시작했다.

의병들은 '무명'(無名)이다. 나라를 위해 불꽃처럼 몸을 불태웠지만, 역사의 기록에서는 자세히 찾아보기 어렵다. 신분은 사농공상으로 다양했지만 애신의 대사처럼 "양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면 이름도 없이 오직 의병"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명의 존재들은 일제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극에서도 자신의 조국을 그제 쇠락한 존재로만 알았던 애신(김희성)에게 조선 침략을 준비하던 일본의 모리 다카시(김남희) 대좌는 경고한다.

"조선은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어요. 민초들이 그때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목숨을 내놓으니까. 임진년에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을미년에 의병이 됐죠. 을미년의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다카시의 예측대로 애신의 부모 역시 의병이었다. 할아버지인 고사홍(이호재) 역시 그 깃줄의 의

지를 어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씨는 총을 잡았다. 한일합병을 1910년까지 늦추고, 이후에도 목숨을 걸고 독립을 위해 싸운 의병들의 각자 사연을 모은다면 드라마 100편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시청자들은 애신과 애신의 부모부터 황은산(김갑수), 장승구(최무성), 홍파(서유정), 소아(오아연) 등 다양한 모습의 의병을 그린 '미스터 션샤인'을 통해 조금이나마 시대를 짐작할 수 있게 됐다.

일제의 악행 역시 점점 극약무도해지고 있다. "전우가 누군지 불지 않으면 죽이겠다", "죽고 싶다면 '목숨만' 살려주겠다"며 갖은 고문을 행하는 일본군들을 보고 있노라면 108년 전 조국의 아픔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실감 난다.

◇ 임정 100주년 시대극 몰고...엔딩에도 관심
내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지상파와 비지상파를 불문하고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들이 대거 중인 가운데 '미스터 션샤인'이 물꼬를 크게 뒀다.

하지만 내년 예정된 '이몽'과 '약산 김원봉'(가제) 등 시대극은 정확히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반면, '미스터 션샤인'은 일제강점기 이전의 이야기를 그렸다. 근대사를 다룬 대부분의 시대극이 일제강점기와 광복 과정에 치중해온 만큼 '미스터 션샤인'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시대를 다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미스터 션샤인'의 시계는 한일의정서가 체결된 1904년을 지나고 있다.

이완익을 비롯해 홍파 등 굵직한 인물들이 줄줄이 죽고, 대한제국이 몰릴 데까지 물린 상황에서 과연 '미스터 션샤인'이 1910년 국권침탈까지 담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일합병까지 그리면서 기억에 강렬하게 남을 새드엔딩을 담을지, 아니면 그 직전 시기를 배경으로 여운을 남기며 열린 결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제작진은 결말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제작사 화엔담픽처스 관계자는 15일 "역사적 배경만 보더라도 남은 4회 동안 일본의 악행은 더욱 극렬해질 것이고, 의병들의 대사처럼 쉽게 조국을 내어주지 않기 위한 그들의 치열한 삶이 더 생생하게 그려질 것"이라고 후반부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

◇ 24부작에 늘어선 아쉬움...숨 가빠진 막판 스퍼트
다만, 다소 느슨한 극의 전개는 아쉽다.

'미스터 션샤인'은 제작비로 약 450억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편성 과정에 불가피함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24부작은 길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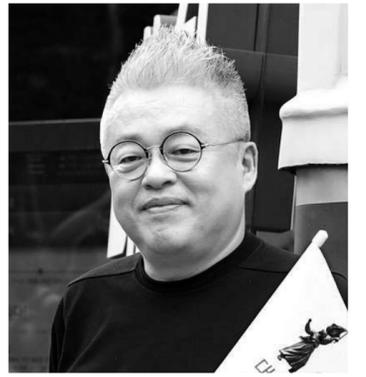
최근 드라마는 편수를 줄이는 추세다. '미스터 션샤인'은 24부작으로 편집되는 바람에 초반부터 중반까지 스토리가 늘어졌다.

남녀 5인방의 사각 로맨스가 극의 큰 줄기인 점을 고려해도 중반부가 너무 많은 분량을 차지했다. 멜로라인마저 큰 구도 변화 없이 지지부진하게 전개되면서 시청률은 15%대에서 답보했다.

노동력 성신여대 교수도 "18부작이나 20부작으로 제작했다면 일찍부터 훨씬 좋은 평가가 나왔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형석 "음악으로 남북 감정 교류 앞장설 것"

지코·에일리와 함께 방북



"북한은 체제가 달라 낯선 곳이지만 중요한 점은 서로 말이 통한다는 것이잖아요. 말이 멜로디에 실리는 노래를 통해 서로 감정을 교류하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곡가 김형석(52·사진)은 18~20일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 남북 특별수행원에 대중문화 예술인으로 참여하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정부 발표 직후인 16일 오후 전화 통화에서 "북한 방문은 처음으로, 외가가 살함민이어서 감회가 남다르다"며 "음악이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이루어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어린 시절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TV로 보며 통곡하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떠올렸다.

"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1970년대인데, 세 분이 함께 통곡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른들이 한꺼번에 우는 모습을 보긴 쉽지 않았고 그 기억이 강렬히 남았죠.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외가 친척을 만난 적도 없기에 기분이 남달라요."

김형석은 방북 당일 저녁 만찬에서 가수 지코, 에일리와 함께 공연할 예정이다.

그는 "북한은 공연계는 만찬을 중요시한다고 들었다"며 "삼지연관현악단이 공연한 뒤 답례로 우리 음악인들이 무대를 꾸밀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의 설명에 따르면 지코와 에일리는 각

기 자기 노래를 2곡씩 부르고, 김형석은 '아리랑'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을 피아노로 연주할 예정이다.

그는 "남북이 모두 알고 있는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아리랑' 등을 피아노로 리하모나이제이션(Reharmonization)해서 새로운 코드로 들려줄 것"이라며 "우리가 아는 코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느낌의 화성으로 연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가 가진 힘은 감성적으로 교류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힘이 가장 극대화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음이 통하는 것이 음악이 가진 힘으로 만찬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데뷔 50주년' 조용필 한정판 LP 제작

MBC FM, 내일 8시간 특집 방송

MBC FM4U(91.5MHz)가 가왕 조용필(68) 데뷔 50주년을 기념해 한정판 조용필 13집 LP를 제작한다.

MBC FM4U는 오는 19일 진행되는 특집 방송인 '조용필, 그 위대한 여정'을 위해 한정판 조용필 13집 LP를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9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8시간 연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방송에는 MBC라디오와 음악관계자 100명이 뽑은 '조용필 최고의 노

래'와 '최고의 앨범'이 공개되고 임진모, 배순탁 등 음악평론가와 김중서, 장기호, 심현보, 이한철 등 후배 가수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오후 6시부터는 2시간 동안 조용필이 단독 출연해 배철수와 심승 인터뷰를 한다.

방송 중 1991년 MBC라디오에서 조용필이 진행한 '조용필의 나이트쇼' 원본 등 여러 자료가 전파를 탈 예정이다.

조용필 측도 "15년만의 라디오 출연인 만큼 음악 인생을 돌아보는 인터뷰를 가질 것"이라며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SBS/KBC), Program Name, and Time Slot.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day of September 18th.

Table with 2 columns: EBS1 and Program Name. Lists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such as '왕초보 영어', '세계테마기행', and '다큐 오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8일 (음 8월 9일 쫓쑤)

Table with 2 columns: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and Fortune Prediction. Provides daily fortune predictions for each zodiac sign, including advice on health, relationships, and career.